

지역·자본·노동의 다중 스케일과 중공업 가족 만들기

-大宇造船 노동조합 노보를 중심으로-

신현아 (동아대학교)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배경

본 연구는 1970년대 중반 영남 지역에 중화학 공장이 건설되면서, 1980년대 이후 국가, 지역, 자본이라는 스케일이 중첩되어 형성된 산업도시 노동자의 삶의 양식을 지역, 노동, 가족이라는 문제들을 교차시키며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형성된 중화학 공업 단지의 노동자 및 산업도시 주민들의 삶을 ‘중공업 가족’ 및 ‘지역적인 삶의 양식’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의식을 교차시킨다. 첫째는 중공업 가족 연구와 서사적 재현이며, 둘째는 노동자 연구와 로컬리티이다. 먼저 기존의 노동 문학 연구에 있어서 노동자 주체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수행되어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동 문학을 ‘중공업 가족’이 재현된 텍스트로 재독하고자 한다. 중화학 공업 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공장 중공업 남성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자리 잡고 계속해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와 자본은 ‘중공업 가족’ 구축을 통해 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노동자들은 자본이 설정하는 ‘중공업 가족’과는 다른 ‘노동자 가족’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노동소설을 통해 재독함으로써 ‘남성 노동자’만이 아니라 노동자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삶의 양식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남성 노동자들이 공단 지역에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재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국가와 자본의 중요한 통제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지역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으로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국가와 자본이 어떻게 지역을 산업 기지로 재배치하고 생산 영역과 재생산 영역을 구분하였는지, 그러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을 중공업 가족들은 어떻게 감각하고 받아들이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국가와 자본에 의해 생산 공장인 동시에 노동자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재배치된 지역의 구조는 그 지역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노동자 가족들의 삶의 방식에도 일정한 제한을 만들어낸다. 중공업 노동자 가족이자 산업도시 주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지역적 구조가 만들어내는 삶의 양식을 따르거나 또는 벗어나면서 삶의 궤적을 만들어나간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이라는 조건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의 양식을 ‘지역적인 삶의 양식’으로 개념화하여 중공업 노동자 가족의 삶을 규명할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와 구성

하여 본 연구에서는 1987년 이후 산업도시 巨濟의 중공업 노동자의 삶의 양식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텍스트로 1988년부터 대우조선 노동조합에서 발간한 노보인 『玉浦 勞報』(1990년 이후 『새벽을 여는 함성』으로 개칭)를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비교 대상으로는 1988년부터 대우조선에서 발간한 사보인 『희망90's』와 1990년 이후 발간된 노동소설을 다룬다. 특히 노동조합의 노보는 노동자들이 직접 글을 쓰고 발간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987년 전후 노동자들의 삶을 다룬 연구는 대부분 ‘노동소설’을 통해 재현된 노동자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 발화하고 있는 텍스트인 노보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2. 중공업 가족과 지역적 삶의 양식

1970년대 중반 영남 지역에 각종 중화학 공장이 건설되면서 국가와 지역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게 된다. 국가는 ‘중공업 시대’를 선언하였으며, 지역은 ‘중공업’ 생산 기지로서 재편되고, 주민들은 ‘중공업 노동자’로서 재탄생하게 된다. 이 과정은 90년대에 ‘대우 가족’이나 ‘또 하나의 가족, 삼성’과 같은 ‘신경영전략’을 통해 기업-지역-가족을 운명 공동체로 묶어내는 과정이기도 했다. 또한 이는 단순히 ‘기업 복지’만이 아니라 지역의 공간적 재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업의 가족만들기와 지역의 공간적 재편, 그리고 그에 대응하여 노동자들이 만드는 가족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경공업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경공업 가족 만들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성 노동자는 가정으로’ 돌려보내졌던 것과 달리 남성 ‘중공업 노동자’는 ‘중공업 가족 만들기’를 통해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재생산하도록 배치가 된다.

지역 노동 가족이 중첩된 ‘중공업 가족 만들기’와 ‘지역적인 삶의 양식 구축’은 결코 단선적인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았다. 자본이 주도하는 가족 만들기과 지역적인 삶의 양식과 노동자들이 대항적으로 만드는 가족 만들기과 지역적인 삶의 양식은 때로는 겹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길항하면서 다양한 지역적 삶의 양식을 주조해내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중공업 가족 만들기’와 ‘지역적인 삶의 양식 구축’이 어떻게 서로 길항하고 겹쳐지고 대립하는지가 서사적으로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분석하여, ‘중공업 중산층’ ‘엘리트 엔지니어’ 또는 ‘지역 노가다 노동자’로 표상되는 것을 넘어 어떻게 노동자들이 삶의 양식을 구축해나갔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첫 번째 연구 관점은 ‘중공업 가족’을 다룸에 있어서, ‘산업 연구’를 넘어서 주체화되는 서사를 분석하는 데 있다. 80년대 이후 노동자들의 서사를 분석하는 것은 현재 ‘산업 연구’와 ‘문학 연구’가 완전히 분리된 측면이 강하다. ‘산업 연구’는 주로 중공업이라는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1970년대 시작된 ‘중공업 시대’가 1990년대 이후 부흥하고 2010년대 이후 몰락하기까지 어떤 산업적인 효과가 창출되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문학 연구’는 주로 ‘노동 문학’을 중심으로 하여 1980년대 문학장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 연구’를 넘어서 노동자와 가족들이 어떤 식으로 주체화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다루면서 ‘노동자 주체화’가 아니라 ‘중공업 가족’이라는 개념을 통해 접근한다는 점은 특히 중요하다. 기존의 ‘노동자 주체화’를 다루는 서사는 남성 노동자의 ‘의식화’와 ‘노동의 주체’로서의 각성을 다루는 측면이 강했다. 이는 결국 1990년대 이후 ‘의식화’된 ‘선진 노동자’들이 자본의 포섭에 ‘전향’하여 ‘중공업 중산층’이 되었다는 서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공업 가족’을 개념을 중심에 놓는다. 이는 ‘남성 중공업 노동자’만이 아니라 ‘중화학 공업 단지’라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노동자, 노동자의 아내, 자녀, 노동자가 아닌 주민 등 지역적 삶의 양식을 망라하여 다루기 위한 접근이다.

3.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족

‘중공업 가족’과 ‘지역적 삶의 양식’을 만들어낸 중요한 축은 국가와 자본이다. 특히 자본은 87년 대투쟁 이후 더 이상 억압적인 군대식 규율만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기업 가족 만들기’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자 한다. 특히 대우조선의 신경영전략인 “희망90’s”는 가장 ‘성공적’으로 노조를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1989년 8월 16일 발간된 『옥포노보』 제25호의 「전사적 조직개편」이라는 기사에서는 “회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숨어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현장과의 잦은 접촉을 통하여 가족적인 회사분위기 조성, 밀착 관리를 통한 노무 관리의 효율화”를 꾀한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1990년 02월 28일 발간된 『새벽을 여는 함성』 제30호의 「회사의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글에는 89년 8월부터 40여 차례에 걸쳐 ‘패밀리 트레이닝’을 실시했다고 전한다. 또한 90년 2월부터는 직원 부인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패밀리 교육’은 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들이 기업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했다. 특히 90년에 4박 5일간 실시된 ‘패밀리 교육’은 “하늘에서 오색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대행진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밤에는 “10명, 50명, 100명, 200명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돌다가 집화식을 하며 “함성이 하나의 힘으로” 모아지고, 모범 근로자들의 해외 산업 시찰과 주부를 대상으로 한 교양 교육으로 ‘근로자’와 ‘주부’의 ‘본분’을 일깨워주는 식으로 이뤄졌다. 해외 시찰, 교양 교육 및 스펙터클한 행사를 통한 ‘하나됨’과 ‘백참’의 체험을 통해 ‘기업 가족 만들기’를 실시한 것이다.

이러한 ‘기업 가족 만들기’는 한편으로 ‘회장님’을 ‘아버지’로 하는 가부장적 가족 형태이기도 하다. 1990년 1월에 발간된 『새벽을 여는 함성』 제29호의 「씨부렁씨부렁」에서 “박소장”은 또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으려면 어깨도 주물러주고 아양도 좀 떨고 그래야지”라고 한 말을 전한다.

4.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 가족

노동자들의 가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든 당면 과제였다. 노조 운영 방향 중 중요한 사업으로 물가가 높은 거제에서 가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비조합 건립과 사원 임대 아파트 관리가 있었고, 그 외에도 ‘불우한 조합원’ 지원, 합동결혼식, 미혼 조합원 미팅, 하계 휴양소 운영을 진행하였고, 조사통계부에서는 가정, 생활, 주거환경에 대한 통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노보에도 노동자의 가족들의 사연을 듣고, “가족과 함께 보는 노보”로 여겨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87년에 해직되었다가 90년 1월에 복직된 백순환은 인터뷰에서 “오랜만에 집 나갔다 돌아온 것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기분”이고 동지들을 “현장에서 만나보니 정말 친형제처럼 느껴”진다고 밝힌다. 노동자들은 해직된 조합원이나 불우한 조합원 등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을 통해서 ‘노동자 가족’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또한 중공업 노동자 가족을 묶어주는 것은 바로 ‘가족 임금’이었다. 중공업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 지역 주민들은 ‘과한 임금 인상 요구’라고 했지만, 노동자들이 쟁취해야 하는 것은 ‘한 사람분’의 임금이 아니라 ‘가족 임금’이었다. ‘주부 교양 교실’등을 통해 기업은 주부 역시도 ‘노동자의 재생산’을 위해 관리하였고, 노동자의 자녀들은 노동자가 되는 지역의 구조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렇다면 자신의 노동은 1인분의 임금이 아니라 최소한 4인분이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대우조선 노동조합, 『옥포 노보』/『새벽을 여는 함성』, 1988~1996.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편, 『한국 노동사 자료총서: 노조사업 및 활동 <4>- 노보, 소식지』, 한국학술정보, 2014.

<논저>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2002

김원정, 「젠더 관점에서 본 한국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김준, 「잃어버린 공동체?-울산 동구지역 노동자 주거공동체의 형성과 해체」, 『경제와 사회』 제 68권, 비판사회학회, 2005;

_____, 「경합하는 정체성, 남성성, 그리고 계급」, 『산업노동연구』 제 16호 1권, 산업노동연구, 2010.

노병직, 「한국조선산업에서의 기업별노사관계시스템의 변환」, 『노사관계연구』 제 13권, 2010

박종기, 「사보 이용이 사내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대우조선해양(주)의 사보 “해오름터”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박희, 「한국 대기업을의 조직 관리와 노사 관계에 관한 연구: 가족주의의 영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신원철, 「경쟁 양식과 노동자 정체성-1960~70년대 기계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제 61권, 비판사회학회, 2004

신현아, 「1980년대 중공업 가족의 형성과 지역적 삶의 반경」, 『동악어문학회』 제 79권, 2019

_____, 「경합하는 노동자의 언어들」, 『인문과학』 제 83권,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양승훈,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산업도시 거제, 빛과 그림자』, 오월의봄, 2019, 168쪽.

우정석, 「단일산업에 의한 지역경제의 경로의존성과 잠김효과: 경상남도 거제시 조선산업을 사례로」, 동국대학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원영미, 「1980년대 울산 대공장 노동자 연구-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유형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과 변형-울산지역 대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1987-2010」,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이재선, 「신경영전략과 기업문화운동의 사례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이재인, 「노동자 정체성과 결혼생활의식」, 『가족과문화』, 제 17권 1호, 한국가족학회, 2005

이주영, 「한국의 국토 계획과 지역 과학 이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이현, 노동건강연대, 『2146, 529』, 온다프레스, 2022.

조주은, 『현대가족 이야기』, 이가서, 2004.

팽경인, 「노동자가족의 노동력재생산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 가족에서 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허은, 「노동계급 가구와 지역노동시장-마산·창원지역 구조조정과 여성 노동 유연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6

홍원표, 「조선산업 노동통제와 노동자 정체성에 관한 연구-A조선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